

이야기 4 : 과부의 두 렵돈

주제말씀
[마가복음 12:43]

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
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

어느 날,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갔어요.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.
많은 사람들 틈에서 한 부자가 으스스대며 앞으로 나왔어요. 부자는 돈 주머니를 열더니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꺼내 보였어요.
그리고 돈 주머니에서 얼마를 헌금함에 넣었어요. 부자가 지나간 뒤 아주 초라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여인이 헌금함 앞으로 다가왔어요.
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.
여인은 정성스레 준비한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었어요.
여인이 드린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2백원~3백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었어요.
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웃었어요.
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어요. 바로 예수님이셨어요.
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처음에 헌금을 했던 부자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드렸구나.”
제자들이 물었어요. “아니, 예수님~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부자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렸고, 저 여인은 동전 2개만 드렸는데요.”
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. “그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돈 가운데 조금을 헌금했지만,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.”
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. 헌금할 때 얼마를 했는지도 보지 않으세요.
다만,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,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신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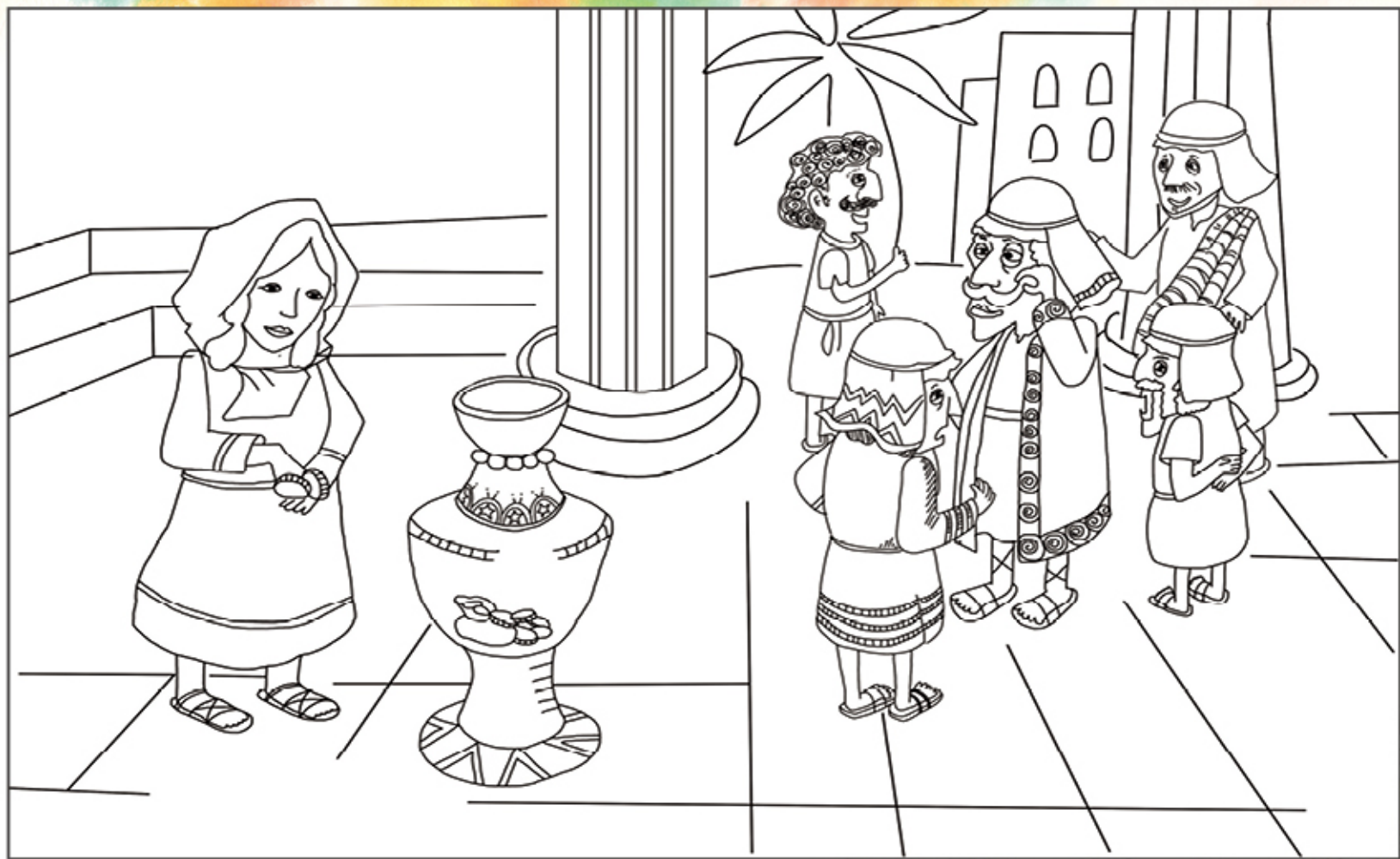
-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, 외워보세요. (마가복음 12:43)

이 가난한 과부는 ...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



활동 1.

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.



활동 2.

가난한 과부는 온 마음을 다해 헌금을 준비했어요.

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릴 수 있나요? 헌금바구니 안에 자신의 헌금을 그려보세요.

